

팀 이름	비정형싱킹
팀원	김정하 (2022-21194), 송형우 (2024-35137)
풀고자 하는 문제 영역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추가 인터뷰 메모 및 도출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터뷰 질문지

0. 라포 형성 (아이스브레이킹)

-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하시는 일 중심으로)
 - 김은영, 2001년 9월 한국에 왔고. 만 38살에 한국에 입국, 5년 있다가 미국 나가서 christian university 졸업하고 아주대 mba 졸업하고

1. 정착 과정 경험

-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낯설거나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 다 낯설죠. 같은 한국말 쓰는 사람이라도, 이질감이 들고, 살아온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느껴지는 다름이 컸음.
 - 자음과 모음이 다르니까, 억양이 다르게 느껴졌음
 - 처음에 오셨을 때 언어에 대한 이질감, 미국에 가게 되면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같은 한국말 이질감. 영어의 이질감? : 한국말 이질감이 영어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말은 사투리가 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이북에 대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심했어요.
 - 그러면, 최대한 잘 적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표현이 좋아서
 - mba를 간 이유는? : 다른 곳에서 왔으니 새로 배운다, 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서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 내가 도전정신이 있나봐요. 그 사이에 스며든다, 평범해지고 싶은. 그런 걸 하고 싶었나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의 기회가 자연히 차려진 것도 있거니와, 배운다는 것을 즐겨했던 것 같아요.
 - 스며들기 위한 노력으로 공부를 선택하셨던 거네요? : 네 맞아요.
 -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을 가게 된 이유는요? : 남편 따라 기회가 주어진 거죠.
 - 한국에 와서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거나 그런걸 준비하는데 있어서 경험 생각나는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 80% 이상은 저축. 동네 친구들과 사귀려고 노력하고.

2. 건강정보 이용 경험

-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 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아산병원에 소화기내과-특진 (페이 조금 더 내고 과장님) 진료 보는게 이해가 안됐어요. 교수님이 들기만 했는데 4만원을 더 내라는게, 이해가 안됐음. 원래 그렇게 있더라고. 자본주의에서는 훌륭하시는 분들은 더 페이를 해야 되는구나. 대접 받는 쪽에 있다가 내 돈 내려니까 엄청 컸었음.
- 건강 관련 정보를 찾을 때 특히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 보험 - 북한이 개인보험, 실비보험이 없음. 친구들 통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됐음. 자본주의에서 생명 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됐음.
- 친구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접했나요? : 그쵸.
- 정착을 도와주는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않았나요? :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담당 경찰, 재단이 붙는데, 나는 일할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저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숨어살고 싶었거든요. 동네 친구들 도움을 받았었죠.
- 남북한이 달랐던 건강 관련 지식? 민간요법? : 감기 걸렸을 때 노란 가래나 콧물 생기는데, 그렇게 생기면 낫는 징조라고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감기 한창일 때의 증상이었음. 우리의 피, 자라 피, 토끼 피 등. . 보약이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침이나 뜸이나 이런건 북한이 더 세다고 생각함. 북한 사람들이 침은 더 잘 놔. 신약/양약 쓰는거 처음에는 강강약약 이렇게 쓰는데 한국은 약약약약 사용하는 거 같음.

북한이탈주민 적응 전문가 대상 인터뷰 질문지

0. 라포 형성 (아이스브레이킹)

-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하시는 일 중심으로)
 - 탈북민 취업지원센터장 최경일님
 - 기업 인사팀장이었고 여명학교 (2008년) 방문했더니 - 아이들 취업이 걱정이라고 하셔서, 취업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관심이 더 가서 본격적으로 하게 됨
 -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지원 진행: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전체 생애 주기에 맞춰서 도와주는 과정 운영 (고등학생, 대학 입학 준비 학생)
 - 입시박람회: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줌. 희망하는 학과 선배를 만나 설명을 듣는 과정 진행.
 - 예비대학: 8월에 합격자가 정해지면, 9월에 진행. 학습기초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글쓰기, 발표, 컴퓨터 활용능력 등)
 -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배 연결 - 학기 동안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
 - 간혹학은 추가 3개월동안 더 배울 기회 줌 (여기까지가 대학 준비기. 이 이후가 취업 준비기)
 - 취업의 큰 그림 그리게 하고, 자격증 취득하고, 전공 공부 도와주고, 필요한 여학 도와주고, 학원비 지원해주고, 1대1 취업 컨설팅까지
 - 기업 적응을 위한, (엑셀, 프레젠테이션 과정 진행)
 - 후배 학생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진행
 - 대학 지원 - 취업 지원 - 사회 지원 순서로 진행
 - 꿈 지원 프로그램: 졸업 후 직업 목표를 이거로 선정해서 진행. 로드맵 만들어서 진행.
 - 20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 지원
-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주로 하오셨나요?

1. 정착 과정 이해

- 북한이탈주민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언어적 어려움
 - 언어가 똑같지만, 사실 똑같지 않다.
 - 약 2,000개 정도 다름
 - 어느정도의 소통은 되지만, 다 아는 것은 아님
 - "교수님이 분명히 한국어로 강의를 하는데, 못 알아들겠다."
 - 북한에서는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음.
 - 외래어, 영어의 어려움 (북한에 영어 시간이 있지만, 짧고 공격적)
 - 역사적 의식
 - 근현대사는 제로 베이스
 - 세종대왕도 모름
 - 경제적 어려움
 - 한국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갑작스럽게 받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
 - 읽어야 하는 책이나 지식이 없어서, 성적이 안 나옴
 - 문해력
 - 한 마을이 한 사람을 키운다고 하는데 마을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 정착 기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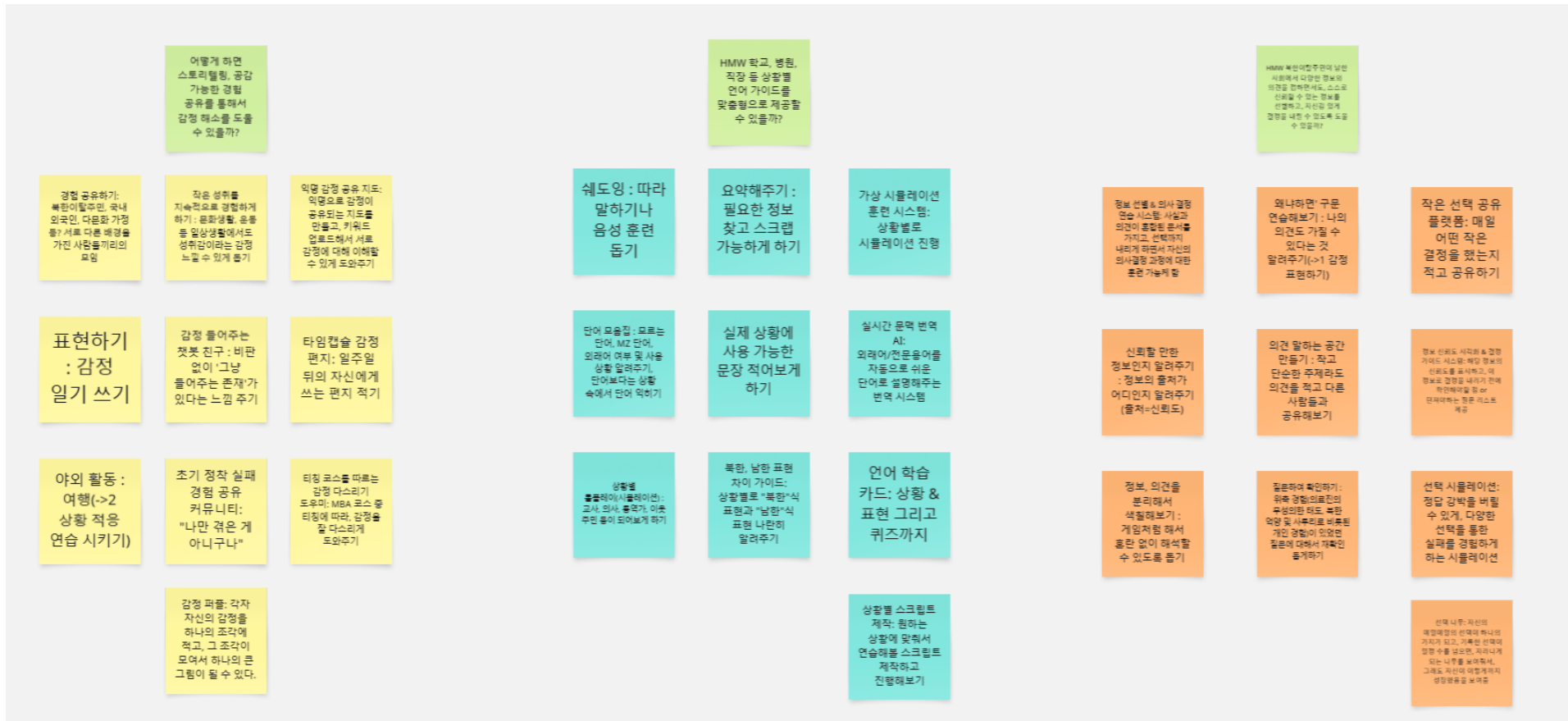
POV 3개

No. #1	정신 건강	가족과의 이별, 정보 과잉, 정체성 혼란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을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비판 없는 지지 공간이 필요
		이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체제에 대한 신념과 인간관계 방식이 남한 사회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
No. #2	언어 적응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표준어, 외래어, 전문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언어 지원이 필요
		북한에서의 언어 습관과 다르게, 남한 사회는 외래어·한자어 비율이 높고 빠른 템포의 소통을 요구해, 일상생활과 공적 활동(예: 학교, 병원, 직장) 적응에 큰 심리적 부담을 주기 때문
No. #3	사회 적응	검증된 건강·진로·생활 정보를 빠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이는 남한 사회에선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아(특히 인터넷, 미디어 기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거나 적용하는 능력이 체계적으로 길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POV #1, #2, #3 에 대한 HMW 질문 모음

No. #1	[정신 건강 증진]	JH	HW
1	HMW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O	
2	HMW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3	HMW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고립감을 줄일 수 있을까?		
4	HMW 정신 건강에 대해 편견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5	HMW 스토리텔링, 공감 가능한 경험 공유를 통해서 감정 해소를 도울 수 있을까?	O	O
6	HMW 북한이탈주민 간 정서적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까?		
7	HMW 감정을 하루에 한 번 점검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정서적 격려를 할 수 있을까?		
8	HMW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한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연결을 구현할 수 있을까?		
9	HMW 북한이탈주민의 감정 변화를 감지하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10	HMW 외로움을 느낄 때 익숙한 말투로 대화해주는 친구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No. #2	[언어 적응]		
1	HMW 한국식 억양과 표현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을까?		
2	HMW 언어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당혹감이나 위축감을 줄일 수 있을까?		
3	HMW 언어 실수에 대한 불안 없이 소통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O	O
4	HMW 개인 맞춤화 된 언어 적응 도구를 만들 수 있을까?		
5	HMW 한국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생기는 문화적 오해를 미리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을까?		
6	HMW 외래어와 한자어의 뜻을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는 도구를 만들 수 있을까?		
7	HMW 학교, 병원, 직장 등 상황별 언어 가이드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O	O
8	HMW 언어 적응을 돕는 챗봇이나 앱을 만들어 실시간 소통 연습을 지원할 수 있을까?		
9	HMW 언어 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줄여주는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을까?		
10	HMW 낯선 단어를 들었을 때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까?		
No. #3	[사회 적응]		
1	HMW 북한에서는 '정답이 있는 정보'만 존재했지만, 남한에서는 '의견과 정보가 섞인 상황'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O	O
2	HMW 생활 필수 정보를 게임/여행처럼 재미있게 익히게 할 수 있을까?		
3	HMW 건강/진로/생활 정보를 요약해주고,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을까?		
4	HMW 사용자가 궁금한 것을 대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5	HMW 정보를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병원 예약, 직업 탐색)까지 이어지게 도울 수 있을까?	O	
6	HMW 초기 정착 20대 탈북 청년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O
7	HMW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주는 대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만 순차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까?		
8	HMW 믿을 수 있는 정보 출처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출처 검증'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까?		
9	HMW 정보가 넘치는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게 돕는 훈련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10	HMW 국가 주도 정보만 경험했던 북한이탈주민이 개인 주도 정보 선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HMW 3개 선정하고 브레인스토밍 진행



가장 좋은 HMW 질문 3개 및 POV

1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 공감 가능한 경험 공유를 통해서 감정 해소를 도울 수 있을까?
1	경험 공유하기: 북한이탈주민, 국내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
2	표현하기: 감정 일기 쓰기
3	야외 활동: 여행(->2 상황 적응 연습 시키기)
4	작은 성취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문화생활, 운동 등 일상생활에서도 성취감이라는 감정 느낄 수 있게 돕기
5	감정 들어주는 핫봇 친구: 비판 없이 '그냥 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느낌 주기
6	초기 정착 실패 경험 공유 커뮤니티: "나만 겪은 게 아니구나"
7	익명 감정 공유 지도: 익명으로 감정이 공유되는 지도를 만들고, 키워드 업로드해서 서로 감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
8	타임캡슐 감정 편지: 일주일 뒤의 자신에게 쓰는 편지 적기
9	티칭 코스를 따르는 감정 다스리기 도우미: MBA 코스 중 티칭에 따라, 감정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기
10	감정 퍼즐: 각자 자신의 감정을 하나의 조각에 적고, 그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이 될 수 있다.

2	HMW 학교, 병원, 직장 등 상황별 언어 가이드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1	쉐도잉: 따라 말하거나 음성 훈련 돕기
2	단어 모음집: 모르는 단어, MZ 단어, 외래어 여부 및 사용 상황 알려주기, 단어보다는 상황 속에서 단어 익히기
3	상황별 롤플레이(시뮬레이션): 교사, 의사, 통역가, 이웃 주민 등이 되어보게 하기
4	요약해주기: 필요한 정보 찾고 스크랩 가능하게 하기
5	실제 상황에 사용 가능한 문장 적어보게 하기
6	북한, 남한 표현 차이 가이드: 상황별로 "북한"식 표현과 "남한"식 표현 나란히 알려주기
7	가상 시뮬레이션 훈련 시스템: 상황별로 시뮬레이션 진행
8	실시간 문맥 번역 AI: 외래어/전문용어를 자동으로 쉬운 단어로 설명해주는 번역 시스템
9	언어 학습 카드: 상황 & 표현 그리고 퀴즈까지
10	상황별 스크립트 제작: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연습해볼 스크립트 제작하고 진행해보기

3	HMW 북한에서는 '정답이 있는 정보'만 존재했지만, 남한에서는 '의견과 정보가 섞인 상황'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 HMW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접하면서도,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1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알려주기: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주기 (출처=신뢰도)
2	정보, 의견을 분리해서 색칠해보기: 게임처럼 해서 혼란 없이 해석할 수 있도록 돕기
3	왜냐하면' 구문 연습해보기: 나의 의견도 가질 수 있다는 것 알려주기(->1 감정 표현하기)
4	의견 말하는 공간 만들기: 작고 단순한 주제라도 의견을 적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보기
5	질문하여 확인하기: 위촉 경험(의료진의 무성의한 태도, 북한 억양 및 사투리로 비롯된 개인 경험)이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재확인 돕게하기
6	작은 선택 공유 플랫폼: 매일 어떤 작은 결정을 했는지 적고 공유하기
7	정보 신뢰도 시각화 & 결정 가이드 시스템: 해당 정보의 신뢰도를 표시하고, 이 정보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해야할 점 or 던져야하는 질문 리스트 제공
8	선택 시뮬레이션: 정답 강박을 버릴 수 있게, 다양한 선택을 통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시뮬레이션
9	정보 선별 & 의사 결정 연습 시스템: 사실과 의견이 혼합된 문서를 가지고, 선택까지 내리게 하면서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훈련 가능케 함
10	선택 나무: 자신의 매일매일의 선택이 하나의 가지가 되고, 기록한 선택이 일정 수를 넘으면, 자라나게 되는 나무를 보여줘서, 그래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성장했음을 보여줌

요약: 알려주기(정보 출처,...) / 해보기(->자신의 의견 표현하기, 확인하기, 토론 환경을 조성해주기) / 보여주기(-> 성취감,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장 좋은 해결책 (아이디어) 3개 선정

1.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알려주기 :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주기 (출처=신뢰도)
2. 의견 나눌 수 있는 챗봇 친구 : 작고 단순한 주제라도 의견을 적고 챗봇과 공유하기
3. 선택 나무: 자신의 매일매일의 선택이 하나의 가지가 되고, 기록한 선택이 일정 수를 넘으면, 자라나게 되는 나무를 보여줘서, 그 래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성장했음을 보여주기

10a. 프로토타입 별 검증하고자 했던 가정들

1. 정보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보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주는 방법이 제공된다면, 이들이 정보의 타당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남한 사회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을 하면,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평가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선택을 기록하고, 그 누적 결과를 '나무'로 시각화해 보여주면,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성장을 느끼고, 정보 선택에 대해 더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경험 프로토타입 3개

경험 프로토타입 #1	
1. 프로토타입 별로 검증하고자 했던 가정은 무엇입니까?	
남한 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신뢰하고 찾고자 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프로토타입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1) ppt를 활용해 슬라이드형 프로토타입 제작	
(2) 각 슬라이드마다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출처를 표시해 줌. 사실 기반의 정보와 의견을 다른 색깔로 시각화 해 줌	
(3) 각 슬라이드마다 유사 정보 기능을 제공함	
3.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테스트했습니까?	
(1) 30대 남자 북한 출신 직장인 대상으로 슬라이드 하나씩 넘기면서 진행	
(2) 마지막에 피드백 질문지를 통해 경험 기록	
4. 경험 프로토타입 테스트 과정에서 만족스러웠던 점, 만족하지 못 했던 점, 배운점은 무엇입니까?	
만족스러웠던 점	궁금한 정보의 출처와 다른 내용을 제공한다는 것이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각화 기능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다.
만족하지 못 했던 점	(1)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 (2) 모든 정보마다의 출처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들었다.
배운 점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5. 프로토타입을 검증한 결과, 앞서 세웠던 가정은 결국 말이 되는 가정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추가된 가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이 되는 부분	참여자가 정보의 사용 여부를 '내 상황에 맞게 평가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가되는 부분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경험 프로토타입 #2	
1. 프로토타입 별로 검증하고자 했던 가정은 무엇입니까?	
남한 사회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을 하면,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평가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2. 프로토타입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1) ppt를 활용해 슬라이드형 프로토타입 제작	
(2) 각 슬라이드마다 정보를 제공하고, 두 명의 AI 친구(남한 사람 봇, 북한 사람 봇)이 서로 다른 의견 제공	
(3) 참여자는 AI 친구들의 의견을 보고 자신의 생각 표현	
3.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테스트했습니까?	
(1) 20대 남자 남한 출신 대학원생 대상으로 슬라이드 하나씩 넘기면서 진행	
(2) 마지막에 피드백 질문지를 통해 경험 기록	
4. 경험 프로토타입 테스트 과정에서 만족스러웠던 점, 만족하지 못 했던 점, 배운점은 무엇입니까?	
만족스러웠던 점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구성 덕분에, 사용자가 깊이 사고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몰입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만족하지 못 했던 점	(1) 사용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구체적인 프롬프트나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아서, 답변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았다. (2) AI 친구들의 워딩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배운 점	정보 전달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5. 프로토타입을 검증한 결과, 앞서 세웠던 가정은 결국 말이 되는 가정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추가된 가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이 되는 부분	참여자가 '정보를 그냥 믿기'보다 '내 상황에 맞게 평가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가되는 부분	(1) 정보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과 연결 구조가 필요하다 (2) AI 친구들의 표현 방식이 사용자 몰입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험 프로토타입 #3	
1. 프로토타입 별로 검증하고자 했던 가정은 무엇입니까?	
선택을 기록하고, 그 누적 결과를 '나무'로 시각화해 보여주면,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성장을 느끼고, 정보 선택에 대해 더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2. 프로토타입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일상 속 선택 상황 5개를 제시하는 슬라이드 제작	
각 상황마다 4개의 선택지를 제공	
참여자가 선택할 때마다 '나만의 선택 나무'에 가지가 자라는 형식으로 설계	
최종적으로 완성된 나무를 통해 자신의 선택 여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줌	
ppt로 제작 후, pdf로 변환	
3.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테스트했습니까?	
(1) 20대 여자 남한 출신 회사를 대상으로 슬라이드 하나씩 넘기면서 진행	
(2) 각 선택을 기록하고, 선택할 때 느낀 생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최종 선택 나무를 완성한 뒤, 준비된 피드백 질문에 대해 답변	
4. 경험 프로토타입 테스트 과정에서 만족스러웠던 점, 만족하지 못 했던 점, 배운점은 무엇입니까?	
만족스러웠던 점	선택을 시각적으로 누적해서 보여줌으로써, 작은 선택도 의미 있게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만족하지 못 했던 점	(1) 나무 성장 시각화가 직관적이긴 했지만, 개인화된 피드백이 부족했다. (2) 선택의 결과(나무 모양)가 지나치게 단순해 깊은 감정 연결은 다소 약했다.
배운 점	선택 자체보다 '선택 이유'를 함께 기록하는 과정이 있어야 자기 성찰이 훨씬 깊어진다.
5. 프로토타입을 검증한 결과, 앞서 세웠던 가정은 결국 말이 되는 가정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추가된 가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이 되는 부분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기보다,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추가되는 부분	선택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선택 이유를 기록하고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해야 성찰과 자신감이 더욱 강화된다.

성공적 경험 프로토타입 선정 (#3)

목표 가정	선택을 기록하고 누적 결과를 ‘나무’로 시각화하면,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성장을 느끼고 정보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속 선택 상황 5개를 제시하고, 각 선택을 할 때마다 ‘나만의 선택 나무’에 가지가 자라나는 구조 설계 • 선택 과정 기록 + 최종 나무 시각화를 통한 자기 여정 피드백 제공
테스트 결과 및 분석	
- 성공적이었던 이유	• 참여자가 매 선택을 의미 있게 느끼고, 자신의 판단 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내가 결정하는 주체’라는 감각을 강화시킴.
	• 선택 과정을 시각적으로 축적해 보여줌으로써 작은 선택의 가치를 높이고, 성찰을 유도함.
- 한계 및 개선점	• 선택 결과 시각화(나무)가 직관적이긴 했지만, 개인화된 깊은 피드백이 부족해 감정 연결성은 약함.
	• 선택 이유를 함께 기록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피드백을 추가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
요약	• 프로토타입 3은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성찰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데 가장 성공적이었다.
	•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외부 평가가 아니라, “내 선택이 내 성장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해결책으로서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였다.



인간중심컴퓨팅연구실 송형우
(2024-35137)
'다양성이 건강한 사회의
최우선 조건'

비정형싱킹 팁



정착 초기 과정의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과정 경험 개선

간호정보학연구실 김정하
(2022-21194)
'취약계층의 건강정보 격차 해결이
나의 관심사'



추가 인터뷰 진행

SEMI-STRUCTURED INTERVIEW

- **WHO ?**

- 한국 정착 22년차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 1명
- **북한이탈주민 한국 정착 지원 전문가**(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최경일 센터장님) 1명

- **WHERE ?**

- 비대면 줌(zoom)을 통해 대략 1시간 정도 진행하였음

- **인터뷰 목적**

- 정신 건강, 언어 적응, 사회 적응을 주제로 구체적인 프로토타입 설계를 위함이었음

- **인터뷰 질문 세션**

- 한국 정착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아이스 브레이킹
- 언어(소통)의 어려움
- 정신 건강 지원의 필요성
- 사회 적응 정보 제공의 필요성
- 미래를 위한 제언

추가 인터뷰 결과

- 언어(소통)의 어려움
 - [P1] : “저는 자음, 모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같은 한국어인데도 오히려 영어보다도 더 어렵더라고요.**”
 - [P2] : “언어가 똑같지만, 사실 똑같지 않거든요. 일단 북한에서는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 시간이 있긴 하지만 짧고 공격적이라서 **영어 자체도 생소하게** 처음이구요.”
- 정신 건강 지원의 필요성
 - [P1] :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심해요. 누구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북한에서 매 맞는 꿈을 자다가 꾸대..”
 - [P2] : “그냥 들어주는 거죠.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크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해서** 곁에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멘토링을 최대한 많이 연결해주려고 해요.”
- 사회 적응 정보 제공의 필요성
 - [P1] : “저는 **필요한 정보를 찾는게 어려워서** 친구들한테 물었었어요.”
 - [P2] : “한국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북한에서 온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찾는 방법을 몰라요. 정보가 많긴 하지만 필요한 정보의 핵심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게 있으면 좋겠어요.”

POV #1 : 정신 건강 증진 필요

- 북한이탈주민은 가족과의 이별, 정보 과잉, 정체성 혼란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을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비판 없는 지지 공간이 필요하다.
-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체제에 대한 신념과 인간관계 방식이 남한 사회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POV #2 : 언어 적응

-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어, 외래어, 전문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돕는 **맞춤형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
- 북한의 언어 습관과 다르게, 한국어는 외래어·한자어 비율이 높고, 빠른 템포의 소통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공적 활동(예: 학교, 병원, 직장) 적응에 큰 심리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POV #3 : 사회 적응

-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에서 필요한 건강, 진로, 생활과 관련된 신뢰할만한 정보를 빠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한국 사회는 인터넷과 를 중심으로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체계적으로 길러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HMW #1 : 정신 건강 증진 필요

- POV : 정보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보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주는 방법이 제공된다면, 이들이 정보의 타당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HMW 스토리텔링, 공감 가능한 경험 공유를 통해서 감정 해소를 도울 수 있을까?**

HMW #2 : 언어 적응

- POV : 한국 사회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을 하면,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평가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HMW 학교, 병원, 직장 등 상황별 언어 가이드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HMW #3 : 사회 적응

- POV : 선택을 기록하고, 그 누적 결과를 ‘나무’로 시각화해 보여주면, 북한이탈 주민은 자신의 성장을 느끼고, 정보 선택에 대해 더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 **HMW 북한에서는 ‘정답이 있는 정보’만 존재했지만, 남한에서는 ‘의견과 정보가 섞인 상황’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Experience Prototype #1

정보 안심 도우미

정보 입력

- 기사, 뉴스, 블로그 등의 링크나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

출처 분석

- 입력된 정보의 출처 (웹사이트, 언론사, 통계 자료) 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 출처에 대해서 시각적 신뢰도 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 신호등 색상(● 신뢰 높음 / ● 보통 / ● 신뢰 낮음)
- 간단한 설명
 - “이 출처는 정부기관이나 공인된 언론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사회·의료·건강

[Q&A] 요즘 유행 코로나 'XBB', 오미크론보다 아픈 것 같아요

사망·위중증 크게 늘어

임재희 기자

수정 2023-08-16 08:27 등록 2023-08-16 15:47

최근 이어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다만 확진자 증가 여파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었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월 8~14일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9018명으로, 직전주 5만388명보다 2.7% 줄었다. 주간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인 건 6월 20~26일 이후 7주 만이다. 그러나 일주일간 발생한 사망자는 146명으로 직전주 98명에 견줘 49.0%나 늘었다.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도 220명으로 그 전주 185명보다 18.9% 증가했다. 요즘 코로나 유행을 이끄는 건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XBB(엑스비비)' 계열이다. 다소 낮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은 과거와 다를까?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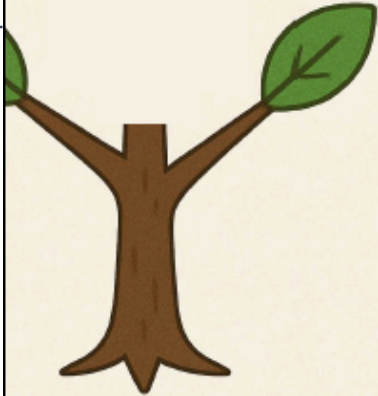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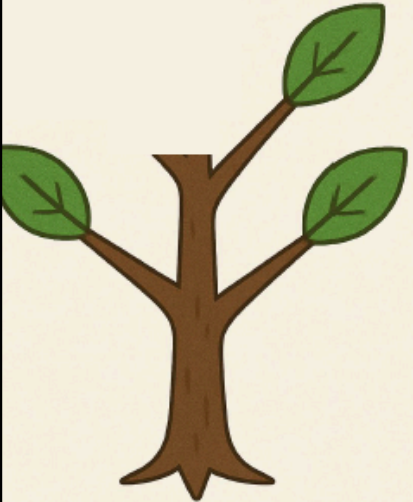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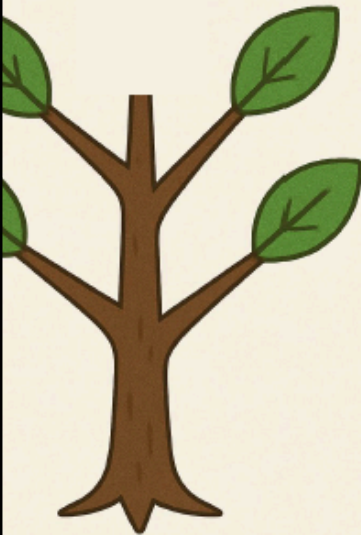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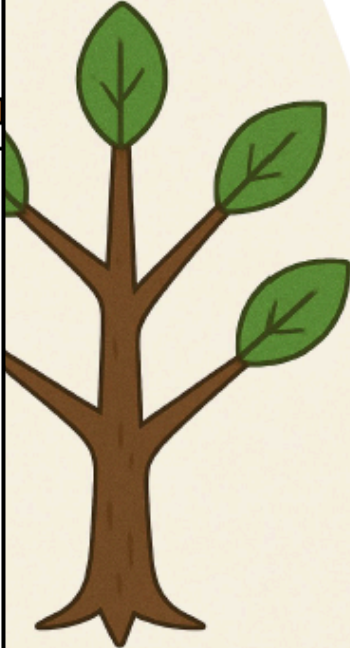
클릭 시 링크되어 출처 확인 가능

하이라이트 색으로 출처의 여부나, 기자 개인의 의견/판단을 표시

Experience Prototype #2

<div>정보를 함께 보고, 서로 다른 생각 나눠보기</div> <div>오늘은 두 명의 AI 친구들과 정보를 살펴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도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div>	<div>함께 하는 친구들</div> <div>AI 친구 1: 남한 사람 봇 ("남한 사회에 익숙한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div> <div>AI 친구 2: 북한 사람 봇 ("북한에서 살았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div> <div>당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진 소중한 참여자</div>	<div>정보 1</div> <div>남한에서는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누구나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심리 검사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남한 사람 봇: 남한에서는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게 여겨요. 상담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div> <div>북한 사람 봇: 북한에서는 정신 문제를 드러내는 걸 꺼려요. 남한에서도 상담 받으려는 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정돼요.</div> <div>당신의 생각은?</div>	<div>정보 2</div> <div>남한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1:1로 상담하고,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마음건강 주치의' 제도가 있습니다.</div>	<div>남한 사람 봇: 꾸준히 한 명의 전문의가 관리해주는 건 안심이에요. 더 깊은 문제까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div> <div>북한 사람 봇: 계속 같은 의사를 만나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내 개인 정보나 상태가 노출될까 걱정되네요.</div> <div>당신의 생각은?</div>

Experience Prototype #3

 <p>오늘 아침,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벼운 산책을 하며 생각 정리하기•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계획 세우기• 침대에 조금 더 누워서 여유 부리기• 바로 해야 할 일을 시작하며 몰입하기	 <p>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넨다• 조용히 관찰하며 친해질 기회를 기다린다• 공통 관심사를 찾아 대화를 시작한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p>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도전한다• 잠시 쉬면서 마음을 다잡는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위로를 얻는다• 새로운 길을 찾아 바로 방향을 전환한다
 <p>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이나 기술을 배우기•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 쌓기• 지금 맡은 일에 더 집중하기• 여행이나 경험을 통해 시야 넓히기	 <p>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보는 방법을 선택한다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책 읽기• 운동이나 산책으로 몸을 움직이기•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힐링하기• 일기를 쓰며 마음을 정리하기	 <p>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삶의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되고 해당 선택이 "나다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p>

Prototype 설명 및 테스트 방법

- Prototype 별 서로 다른 테스트 대상자에게 슬라이드를 한 개 씩 넘기면서 진행
- 각 선택을 기록하고, 선택할 때 느꼈던 생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함
- 경험 프로토타입 #1, #2 : 마지막에 피드백 질문지를 통해 경험을 기록하게 함
- 경험 프로토타입 #3 : 마지막에 최종 선택 나무를 완성한 뒤, 준비된 피드백 질문에 답변하게 함

Prototype Evaluation

- 만족스러웠던 점 :
 - #1 정보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사실 기반의 정보 & 의견을 시각화해줘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었다.
 - #2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구성 덕분에, 사용자가 깊이 사고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몰입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 **#3 선택을 시각적으로 누적해서 보여줌으로써, 작은 선택도 의미 있게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 만족하지 못했던 점 :
 - #1 : 모든 정보에 대해서 출처를 알려주는 것은 불필요한 정보 같다.
 - #2 : 사용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구체적인 프롬프트나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아서, 답변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았다. & AI 친구들의 워딩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 **#3 : 나무 성장 시각화가 직관적이긴 했지만, 개인화 된 피드백이 부족했다. & 선택의 결과(나무 모양)가 지나치게 단순해 깊은 감정 연결은 다소 약했다.**

Prototype Evaluation

- 배운 점 :

- #1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2 정보 전달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3 선택 자체보다 ‘선택 이유’를 함께 기록하는 과정이 있어야 자기 성찰이 훨씬 깊어진다.**

- 가정의 변화:

- #1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 #2 정보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과 연결 구조가 필요하다
- **#3 선택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선택 이유를 기록하고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해야 성찰과 자신감이 더욱 강화된다.**

요약정리

- **목표**

-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정신 건강, 언어 적응,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경험 프로토타입 설계 및 평가

- **방법**

- 주요 3개 주제(정신건강, 언어적응, 사회적응)에 대해 How Might We(HMW) 질문 도출 → 경험 프로토타입 개발 → 사용자 테스트 진행

- **우리가 발견한 점**

- 신뢰성 있는 정보 출처 제시가 사용자 신뢰를 높인다.
-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용자의 사고와 질문을 유도하는 구조적 설계가 필수적이다.
- **선택 과정에 대한 기록과 개인화된 피드백이 자기 성찰과 자신감을 강화시킨다.**

- **다음 단계**

- 피드백을 통합하여 프로토타입 개선
- 정교한(high-fidelity) 프로토타입 개발
- 차기 사용자 테스트 설계 및 실행